기업개요 2017

진보의 구현

BOUYGUES

차례

1 **살고 싶은, 지속가능 도시** 02

조직도 및 주요 지표 12

2 **진보의 구현** 16
부이그 건설, 부이그 부동산, 콜라스

3 **모든 시청자들에게 맞는 TV 및 디지털 컨텐츠 제공** 28
TF1

4 **고객의 디지털 라이프를 위하여** 34
부이그 텔레콤

5 **이동 솔루션 파트너** 40
알스톰

부이그 그룹의 강점

강력한 기업문화
- 신뢰에 기반한 경영방식
- 도전정신, 업무에 대한 열정, 스스로와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탁월성을 추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창조성을 발휘하는 임직원

핵심적인 니즈에 대한 해결책 제공
- 주택, 인프라(건물, 교통), 에너지 관리, 미디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 일상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

전세계 90개국 가까이 진출
- 프랑스의 촘촘한 사업장 네트워크
- 대형 프로젝트를 위해 국제적으로 팀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강력한 국제적 진출

계열사:
- 노하우를 널리 인정받고 있는 계열사: 부이그 건설, 부이그 부동산, 콜라스, TF1, 부이그 텔레콤

견조한 재무구조

표지 사진은 파리 법원 건물. 2017년 인도되었으며, 건축가인 렌조 피아노는 〈르 모니퇴르〉지와 〈AMC〉지가 수여하는 2017년 은삼각자상(Prix de l'Équerre d'Argent / 프랑스 올해의 건축상)을 받은 바 있다.(© Augustin Détienne/Capa Pictures)

옆의 사진은 상트랄쉬펠렉(파리-사클레) 대학의 새 건물인 프랑시스 부이그 건물의 로비

2018년 2월 • 부이그 그룹 홍보부
디자인 - 제작: TERRE DE SIENNE• PDI 인쇄소(발-두아즈지방)에서 인쇄, 100% 재활용 무염소표백 용지 사용 • 번역: 고은경 • 꼭 필요한 수량만큼만 한정 인쇄하였으므로 본 문서를 버리지 말고 보관하시고, 버리실 때는 재활용해 주십시오 • 2017년 부이그 연례보고서의 원본은 2018년 3월 22일부터 www.bouygues.com 및 그룹 직원용 포털 사이트인 ByLink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RECYCLED
Paper made from recycled material
FSC® C106113
FSC www.fsc.org
paplers Agissez pour le recyclage des papiers avec Bouygues SA et Ecofolio.

“부이그는 강한 잠재력을 갖춘 부문에서 뛰어난 입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마르텡 부이그 회장

2017년은 **그룹의 실적과 수익성의 큰 폭으로 향상**된 한해였습니다. 부이그의 모든 사업부문은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함으로써 이러한 성과에 기여하였습니다.

경상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7% 성장하였고 경상영업이익률은 0.8포인트 상승한 4.3%를 기록하였습니다. **건설부문**의 경상영업이익률은 0.2포인트, **TF1**의 경우는 2.4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부이그 텔레콤**은 뛰어난 영업 및 재무 실적을 보였습니다. 모바일 및 유선 부문 모두 고객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EBITDA율 역시 27.2%로 2016년 대비 4.6포인트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2015년 말 설정한 목표치 2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부이그 그룹은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였습니다. 건설부문은 프랑스와 해외 시장에서 영업 실적을 향상시켰습니다. 지속가능지구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캐나다와 호주 시장에서 지속적인 팽창세를 보였습니다. TF1은 제작 사업을 유럽 시장으로 확대했고, 특히 현재 진행중인 **오페미넹** 인수를 통해 디지털 부분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부이그 텔레콤은 유선 부문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자체 FTTH 네트워크 전개와 광통신 상품 판매를 가속화하였습니다. 순부채는 2017년 12월 말 기준 19억유로로 안정세를 유지하였습니다. **견조한 재무구조를 지닌 부이그 그룹은 향후 발전을 도모할 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탁월한 실적에 힘입어 2017년 사업분 **주당 배당금을 0.1유로 상향조정**하여 주당 **1.7유로**의 배당금을 주주들께 제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이그는 성장잠재력이 큰 부문에 강력한 입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전망이 매우 좋습니다. **2018년에도 부이그 그룹은 점차적인 수익성 향상세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부문[a]과 TF1[b]의 경상영업이익률은 2017년 대비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이그 텔레콤은 수익성 있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2018년 EBITDA율이 2017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므로, 2019년까지 잉여현금흐름[c] 3억유로 조성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나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애사심, 그리고 고객 및 주주 여러분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 2월 22일

(a) 넥스트도어 제외
(b) 주요 스포츠 행사 제외
(c)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서 순금융비용, 세금, 순영업투자를 감산한 금액. 잉여현금흐름은 운전자금 소요 변동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2017년 주요 지표

직원 수
115,530명

매출액
329.04억유로 (+4%)

경상영업이익
14.20억유로 (+27%)

영업이익
15.33억유로 (+62%)

그룹 지분 순이익
10.85억유로 (+48%)

순부채
(19.14억)유로
(-4800만유로)

부이그 그룹 프로필

1

살고 싶은, 지속가능 도시

그린 마크 골드 플러스 및 콘카스 스타 인증을 받은 싱가폴의 식물 조경 쌍둥이 빌딩 뉴 퓨처라의 중심부에서 즐기는 한때의 휴식.

전세계 거의 90개 국가에서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부이그 그룹은 115,000명의 임직원과 다각적인 사업부문(건설, 미디어, 통신)에 힘입어 핵심적인 니즈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1세기의 주요 과제 중에서도 부이그 그룹의 사업부문은 다음 삼중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 **환경적 도전:**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 다양성 훼손 및 자원 고갈로 경제 모델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 **인구 측면의 도전:** 날로 가속화되는 도시화와 도시를 보다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교통, 통신 소요의 증가;
- **기술적 도전:** 모든 분야에 적용되며, 교류를 단순화하기 위한 놀라운 증폭제 역할을 하는 디지털 전환.

인류의 진보에 일조하는 것은 창사 초기부터 부이그 그룹의 핵심적인 임무였다. 부이그는 그간의 경험과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심도 깊고 빠른 사회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양상의 신속한 변화에 부응하고 있다.

환경적 도전에 직면하여

2017년 부이그는 프랑스기업기후서약(French Business Climate Pledge)[a]에 서명함으로써 프랑스 주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약속에 동참하였다. 부이그 그룹은 모든 종류의 자원을 덜 사용하는 새로운 건축 모델을 개발하고 실현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택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이 설정한 2050년까지의 에너지 절감 목표치에 부응하고 에너지 취약층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의 1억 9000만채의 주택의 열효율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부이그 그룹은 **에너지 효율** 노하우 및 **주민이 계속 생활하는 가운데 공사를 진행**하는 노하우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부이그는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특성을 보존하면서 <전력 저소비 건물>이나 <에너지 생산 건물>로 리모델링 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한다.

낭비를 줄이기 위한 선진 건축

부이그는 일차 에너지(광물 자원, 수자원 등) 보존 및 채굴현장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책임있고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예를 들어 목재를 사용한 건설)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부이그 그룹은 또한 여러 대형공사를 통해 재건축시 **건물의 2차 건축자재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부이그 그룹은 특히 건물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서 **순환경제**[b]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라벨 BBCA(저탄소건물)를 적극 옹호한다.

도시의 에너지 자급 개선

부이그는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을 통해 도시 지구의 **자율성 제고**에 일조하는 에너지 생산 구조물(에너지 생산 건물, 태양광 발전 도로)을 제안하고 있다. 부이그는 또한 일본과 필리핀의 대형 태양광 발전소 등 대규모의 재생 에너지 생산장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호주에도 곧 대형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이다.

(a) 2017년 12월 12일 파리에서 개최된 <원 플래닛 서밋>에서 발표된 문서. 이 문서에 서명한 89개 프랑스 기업들은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 다 함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천명하였다.

(b) 자원(원자재, 물, 에너지)의 소비 및 낭비, 그리고 폐기물 발생을 제한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모델을 칭함(공식적인 용어 정의)

스마트 커넥티스 시티 디종

살고 싶은, 지속가능 도시를 위하여

부이그는 도시화의 가속화에 부응하여 도시의 당사자들(기업, 벤처 기업, 학계, 시민단체, 지자체 등)이 결성한 컨소시엄의 틀 안에서 **지속가능지구** 고안에 참여하고 있다. 지속가능지구의 첫 번째 목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전체적인 환경발자국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2017년에는 다음과 같은 다수의 상징적인 사업들이 혁신적인 도시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이그의 능력을 입증하였다:

- 디종 광역시(24개 기초지자체 참여)는 **도시 기능의 통합디지털관리**를 위해 부이그가 이끄는 컨소시엄을 선정하였다.
- 부이그는 유럽 최대의 국제 도시조성 공모전인 <그랑 파리 광역시를 만듭시다>라는 사업공모전에서 **10개의 스마트 지구 사업** 개발업자로 선정되었다. 이로서 부이그 그룹은 단연 도시계획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부이그는 또한 **그랑 파리의** 새로운 지하철 노선들의 **터널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호주 멜버른에서는 9킬로미터에 달하는 지하철 터널 공사를 수주한 바 있다.

모두에게 유용한 서비스 창조

사물 인터넷 전문 자회사 오브제니우스를 통해 부이그는 고객들이 **저전력 장거리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기능, 물류 흐름, 인프라 안전 등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부이그는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턴키 계약을 고객들에게 제안함으로써 전기 이동수단(자동차, 이륜차, 전기 자전거, 버스)의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

250,000명

디종 광역시 스마트 시티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민의 수

널리 인정받는 CSR 정책

부이그는 2014년 채택한 STOXX 글로벌 ESG 리더 지수 및 유로넥스트 비지오 유로존 120 지수에 더해 FTSE4Good 지수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지수들은 전사업부문에 걸친 환경책임 업무관행, 공정 및 상업 솔루션에 있어 부이그 그룹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는 좋은 예라 하겠다.

1 • 콜라스 직원의 육체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된 부분 외골격 장치 엑소푸쉬 (Exopush)
2 • 비바텍 2017 전시회의 TF1 부스에서 <코-란타>와 함께 미래의 텔레비전 체험 공유

콜라스가 개발한 스마트 도로 플로웰은 도로에 센서와 LED를 장착하여 상황에 맞게 지상 신호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일상의 진보

부이그는 업무 용도 및 사적 용도를 탈바꿈하게 하는 디지털 변화에 직면한 사회의 니즈에 민첩하게 부응하기 위해 개방 및 공유형 혁신에 투자한다.

통신, 정보, 오락

부이그 그룹은 부이그 텔레콤의 4G 네트워크를 통해 양질의 통신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에게 **편리한 디지털 라이프**를 제공한다. TF1은 **시민사회의** 모든 다양한 부문의 **니즈에 부응**하는 광범위한 오락 및 교양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생태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혁신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창조하기 위해 부이그는 항상 협력업체, 대학, 연구소 등 **외부 파트너의 전문성**을 요청한다. 언제나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부이그 텔레콤은 고객에게 맞는 상품을 고객과 함께 개발하기 위해 고객위원회라는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부이그는 **파괴적 혁신을 한발 앞서 제안**하기 위해 모든 계열사가 창업 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부이그 그룹은 야심찬 리모델링 사업(파리의 에올 에방질 또는 마르세유의 레파브리크 등)을 수주하여 추진함에 있어, 혁신적인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의 재창조

부이그 그룹은 성과와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상품, 서비스, 공정을 재창조**함으로써 디지털 혁명에 참여하고 있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즉 디지털 모델링)을 건축부문에 전개하여 다양한 혁신의 길을 열었으며, 부이그 건설은 2017년 다쏘시스템 및 액센츄어와 손잡고 프로젝트 진행의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3D 다이내믹 모델링에 힘입어 건설부문은 구조물의 설계와 시공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2017년에는 콘크리트 3D 프린팅 테스트(낭트의 주택 등)를 다수 진행하였는데 전망이 매우 밝다.

부이그 건설이 2017년 6월 13일 주관한 세계안전보건의 날을 맞아 챌린저에서 개최한 행사

부이그, 사내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시작하다

직원들의 창조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이그는 "사내 기업가정신"을 장려 및 촉진하고자 한다. 이는 특히 보다 지속가능하고 살고 싶은 도시를 위한 아이디어들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타트업처럼 혁신하기"라 명명된, 직원 기업가들에게 의미를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개인적인 맞춤 지원(멘토링, 교육, 재원 제공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룹의 영업활동을 보완하는 영업활동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부이그 그룹의 직원

부이그 그룹의 직원들은 인사헌장에 명시된 존중, 신뢰, 형평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갖고 있으며, 매일의 업무에 의욕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인류의 진보를 위한 부이그 그룹의 지속적 성과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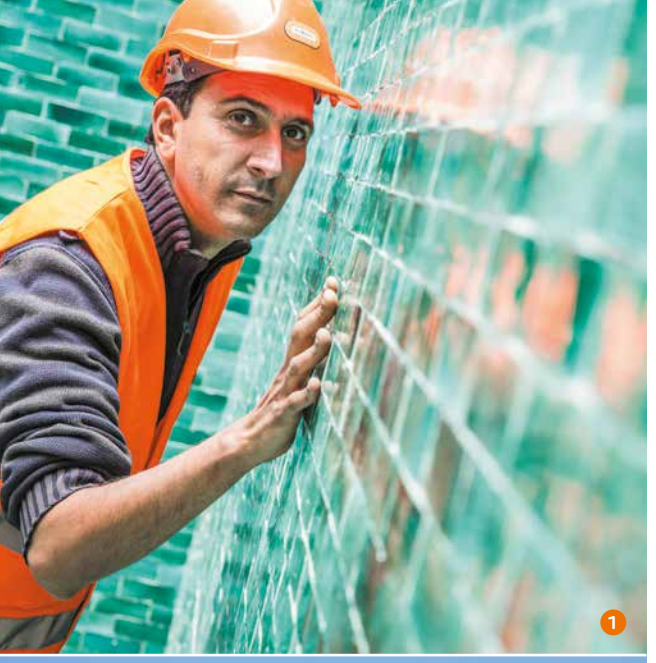
윤리적인 행동 준수

부이그 그룹의 윤리강령은 2006년 발표된 공공문서로서, 그룹이 추구하는 가치에 입각하여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윤리강령이 실행된 이래 5대 사내 준수 프로그램(경쟁법, 부패방지, 재무정보 및 증권거래, 이해상충, 수출 금지 및 제한)을 마련하여 강령을 업데이트 및 보완하고 있다. 2017년에는 일부 공개 문서를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경보 방식을 직원들에게 제공하였다.

업무 방식 진화

직원들이 교류와 창조성이 장려되는 쾌적한 업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부이그 그룹은 코워킹[a], 창조 워크숍, 협업 디지털 툴 등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간 구성을 전개하고 있다. 넥스트도어[b] 컨셉을 창시한 부이그 부동산은 2017년 본사 건물의 공간을 이러한 새로운 원칙에 입각하여 재구성함으로써, 그룹 내외에 구체적인 실례를 제시하였다. 시공현장 직원들의 업무 또한 변화하고 있다. 일례로, 부이그 건설과 콜라스는 업무상 일부 동작의 신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체공학적인 외골격을 개발하였다.

(a) 업무 공간 공유 및 네트워크상의 협업
(b) 협업형 업무 공간



1 • 부이그 건설 모로코 지사의 직원, 2017년 인도된 마라케시의 이브 생로랑 박물관에서.
2 • 프랑시스 부이그 기업재단 장학생의 경험 공유

729명

2005년 창립 이래 프랑시스 부이그 기업재단의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 수

모든 재능있는 인재 유치

부이그 그룹은 직원 채용시에나 경력 관리시에 **다양**한 졸업장과 이력을 가진 인재들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건설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계로 남성직원이 대부분인 부이그 그룹은 **양성 균형**이 회사에게 도움이 된다는 신념하에 프랑스에서 여성 관리자 수를 크게 증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2015년 대비 4퍼센트 포인트 증가한 여성 관리자 비중 2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성 관리자 비중 증가"

부이그는 또한 **국토개발**에 참여하고 있는데, 공사가 있을 때마다 고용시장에서 멀어진 이들을 채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한편 TF1은 기업재단을 통해 취약지역 출신의 청년과 성인들의 고용을 진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 고용 역시 채용, 고용 유지, 직원 인식 제고, 하도급시 보호 부문 발주 정책의 일환으로 추구하고 있다.

함께 진보하기

부이그 그룹은 고용가능성을 제고하고 전문적 역량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직원들에게 제안하고 있다. 그룹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차 멘토링(코칭) 이니셔티브는 직원들이 전문가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여러 계열사의 공석이 사내에 공지되므로 부이그 그룹 내에서 다양한 경력 **발전**이 가능하다.

기업가 정신에 문호 개방

직원들의 혁신적인 이니셔티브를 장려하기 위해, 총괄적인 개방형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2017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기업가정신** 장려 프로그램(7페이지 참조)을 시작하였다.

공동체를 위한 참여

부이그 그룹의 모든 계열사들은 지역공동체를 위한 연대 이니셔티브나 후원 등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한다. 2017년 TF1은 일관성과 효과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을 TF1 이니셔티브라는 공동 포털 사이트에 모았다.

프랑시스 부이그 기업재단은 매년 학업에의 열정은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학생 6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한다. 2005년 재단창립 이래 약 700명에 가까운 젊은 학생들이 장학금과 함께 후원자(부이그 그룹 직원이나 선배 장학생)의 멘토링 혜택을 받았다.

2017년 주요 사항

1 •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마카오의 럭셔리 호텔 모피어스 인도

2 • 자트 섬(오-드-세느 지방)의 고급주택사업 <앙트르 되 리브(Entre deux rives)>

최고 직장

부이그는 본사와 모든 계열사(부이그 건설, 부이그 부동산, 콜라스, TF1, 부이그 텔레콤)가 프랑스최고직장 2018(Top Employers France 2018) 인증을 받은 최초의 그룹이 됨으로써, 뛰어난 인사정책을 펴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탁월한 건축물 인도

2017년 부이그는 파리의 새로운 법원 건물(표지 사진), 라 세느 뮤지컬, 님-몽펠리에 간 우회선로 등 다수의 탁월한 건축물을 인도하였는데, 그 중 파리 법원 건물은 한해 동안 인도된 건물이나 구조물 중 최고 작품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인 2017년 은삼각자상(prix de l'Équerre d'argent)[a]을 수상하였다.

프랑스 최초의 스마트 시티 디종

부이그 에너지 & 서비스와 시텔럼(EDF) 컨소시엄은 디종 광역시의 공공장소를 커넥티드 시티로 관리하는 사업을 수주함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공공조명 관리, 교통 및 주차공간 정보 제고, 대중교통에 우선권을 주는 교통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2018년부터 24개의 기초지자체에 이들 서비스가 제공된다.

미래의 유럽 리더 넥스트도어

부이그 부동산과 아코르호텔은 프랑스와 유럽에서 코워킹 스페이스 넥스트도어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양사가 동일 지분을 투자하여 공동 기업을 창립하였다.

2017년 최고의 시청률

레 장포아레 공연이 2017년 텔레비전 최고 시청률(1060만명 시청[b])을 기록하였다. 공연 판매수익(CD, DVD, 입장권)으로 2017년 1520만끼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었다.

3 • 캘거리(캐나다) 남서 외곽 순환도로 공사현장

4 • 레스토 뒤 퀘르(Restos du Cœur, 취약층 식사제공 사업)를 위한 TF1의 <E.N.F.O.I.R.É.S. 2017 미션>

20건 중 19건

2017년 20대 최고 시청률[b] 중 19건을 TF1의 프로그램이 점했다

140만명

2017년 부이그 텔레콤 모바일 고객 증가 수

(a) <르 모니퇴르>지와 <AMC>지가 수여
(b) 메디아메트리의 메디아맛 2017

부이그 그룹의 직원

2017년 12월 31일 기준

주요 지표

직원수

115,53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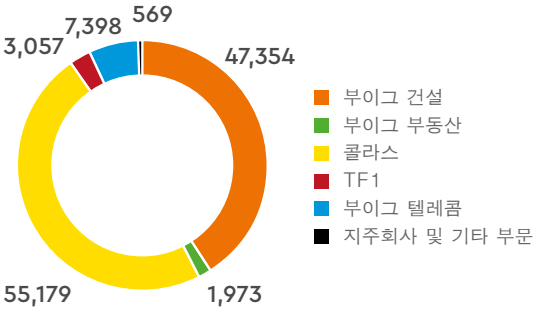
직원들은 부이그 그룹의 가장 큰 자산이다
(그룹 인사헌장에서 발췌).

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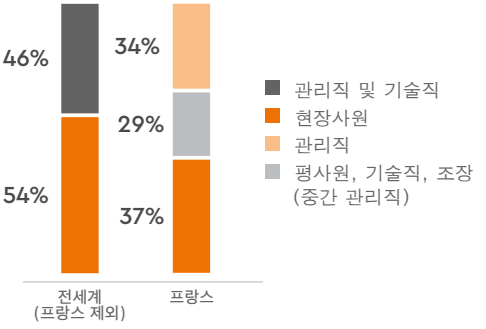
30,641명

목표: 미래를 이끌어갈 재능 있는 인재 발굴,
지원자들을 위한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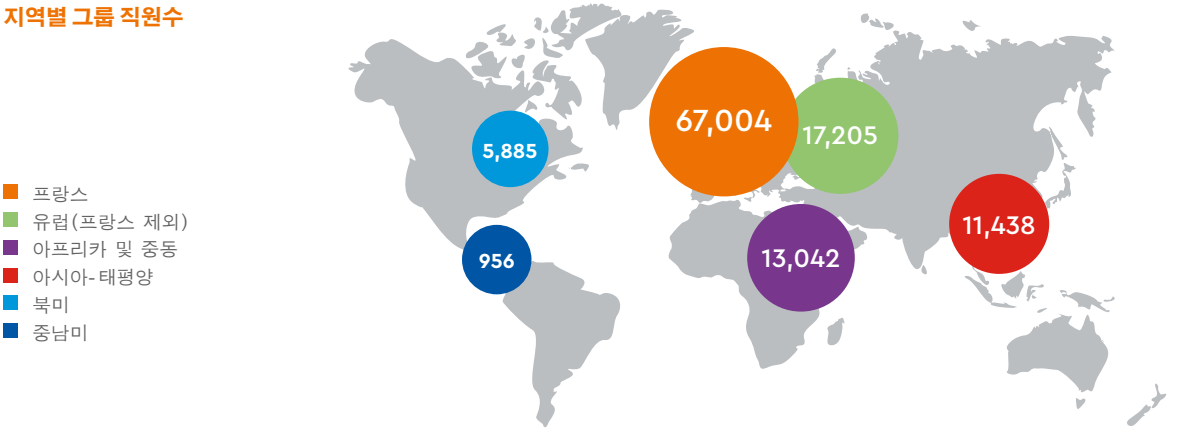
부문별 그룹 직원수



직급



지역별 그룹 직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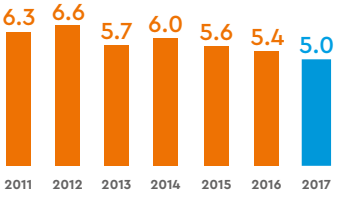


건강 및 안전: 최우선 순위

부이그 그룹의 건설부문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도급업체 및 용역업체 직원을 포함한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안전 및 보건 정책을 펴고 있다. 일례로 부이그 그룹에서는 40여개국 900개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세계안전보건의 날을 주관하였다.

부이그 그룹 직원의 산재사고 빈도[a]

범위: 전세계



(a) 근로손실을 동반한 산재사고 수 x 1,000,000/근무시수

부이그 그룹의 강점 우리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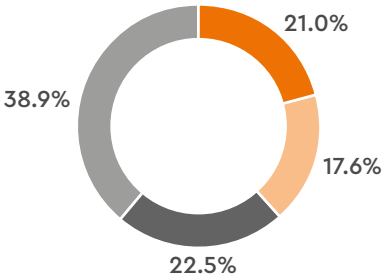
지분의 17.6%를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이그는 파리 증권거래소 주가지수 CAC 40 구성 기업 중 우리사주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이다. 인센티브형 기업직원저축이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확신하는 부이그 그룹은 이를 프랑스 및 다른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약 53,000명의 직원이 참가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예는 2017년 말에 시행된 1억 5000만유로 규모의 직원 전용 증자 프로그램이었다.

부이그 그룹의 주주 구성

2017년 12월 3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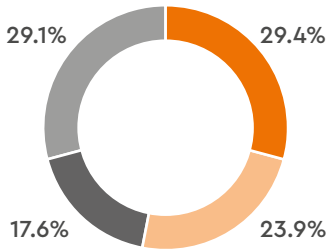
지분 비중

366,125,285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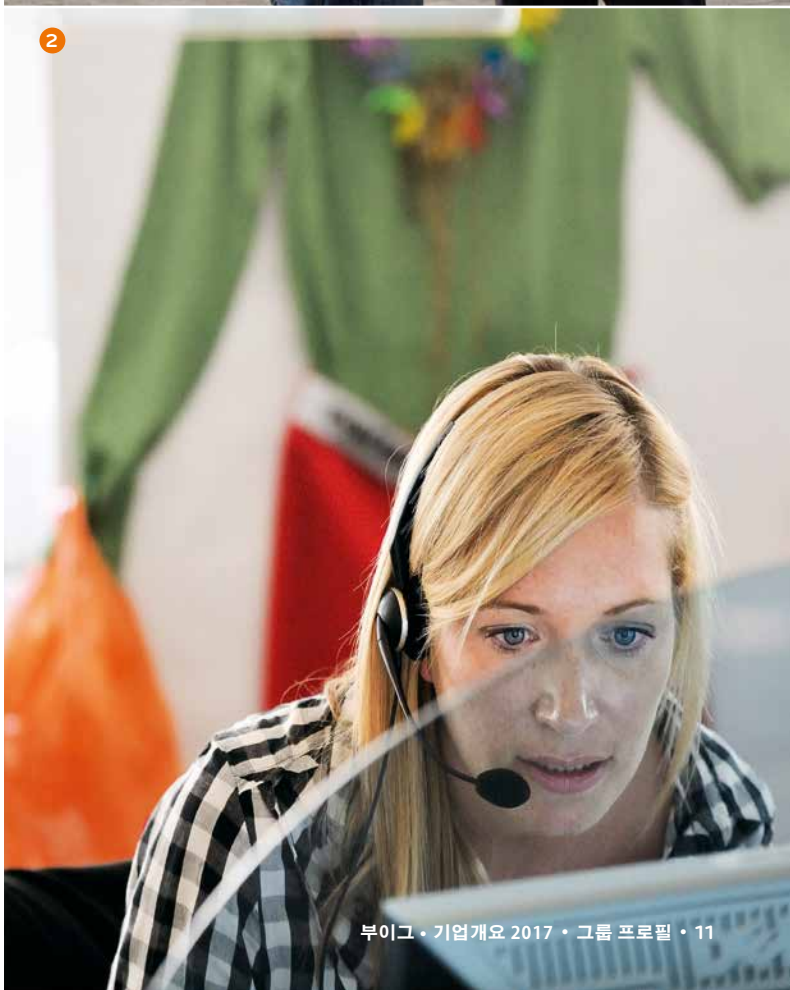
의결권 비중

489,672,012개의 의결권



- SCDM[a]
- 우리사주
- 기타 프랑스 주주
- 외국 주주

(a) SCDM은 마르텡 부이그 회장 및 올리비에 부이그 부회장이 지배적 지분을 지닌 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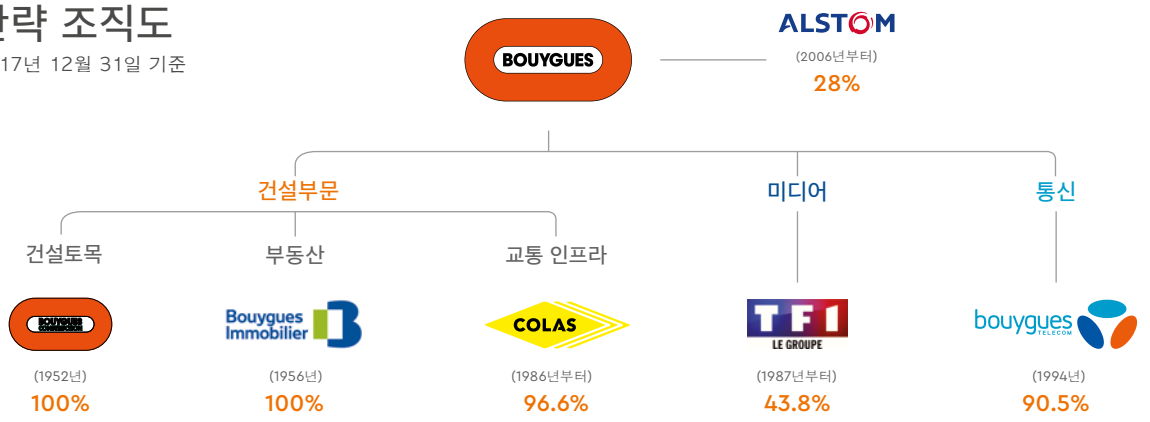


1 • 2017년 인도된 에든버러(스코틀랜드)의 퀸스페리 크로싱 공사현장의 직원들
2 • 낭트의 부이그 텔레콤 고객서비스센터의 담당직원

조직도 및 주요 지표

간략 조직도

2017년 12월 31일 기준



경영진

2017년 12월 31일 기준

본사

Martin Bouygues
회장

Olivier Bouygues
부회장

Philippe Marien
부회장

Olivier Roussat
부회장

Jean-François Guillemin
총무이사

5대 사업부문 최고경영자

Philippe Bonnave
부이그 건설 회장

François Bertière
부이그 부동산 회장

Hervé Le Bouc
콜라스 회장

Gilles Pélisson
TF1 회장

Olivier Roussat
부이그 텔레콤 회장

이사회

2017년 12월 31일 기준

Martin Bouygues
회장

Olivier Bouygues
부회장

Cyril Bouygues
SCDM Participations 상임대표

Edward Bouygues
SCDM 상임대표

Francis Castagné
사원 대표

Raphaëlle Deflesselle
사원 대표

Clara Gaymard[a]
Raise 공동창립자

Anne-Marie Idrac[a]
툴루즈 블라냑 공항 감시위원장

Patrick Kron
Truffle Capital 회장

Helman le Pas de Sécheval[a]
Veolia 그룹 총무이사

Colette Lewiner[a]
Capgemini 회장 자문

Sandra Nombret
우리사주 대표

Alexandre de Rothschild
Rothschild & Co 선임 부회장

Rose-Marie Van Lerberghe[a]
Klé pierre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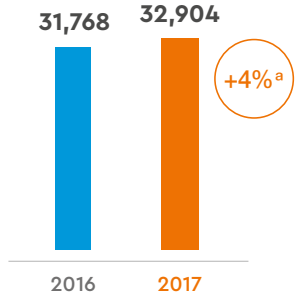
Michèle Vilain
우리사주 대표

(a) 이사회가 독립이사로 규정한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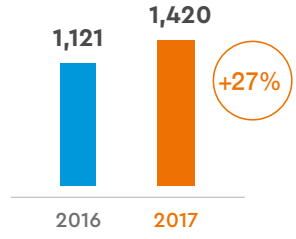
부이그 그룹의 주요 지표

단위: 백만 유로, 2017년 12월 3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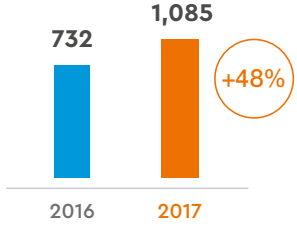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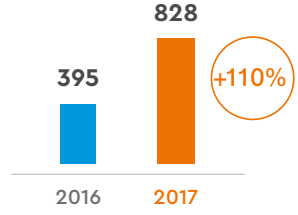
경상영업이익



그룹 지분 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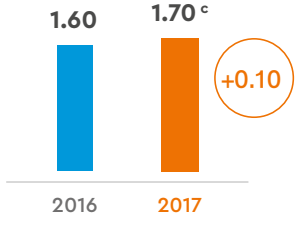


잉여현금흐름[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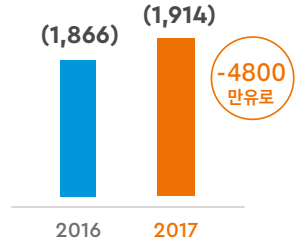


주당 배당금

단위: 유로



순부채



(a) 동일 범위와 환율 적용시 4% 상승

(b)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서 순금융비용, 해당년도 세금, 순영업투자를 감산한 금액. 잉여현금흐름은 운전자금 소요 변동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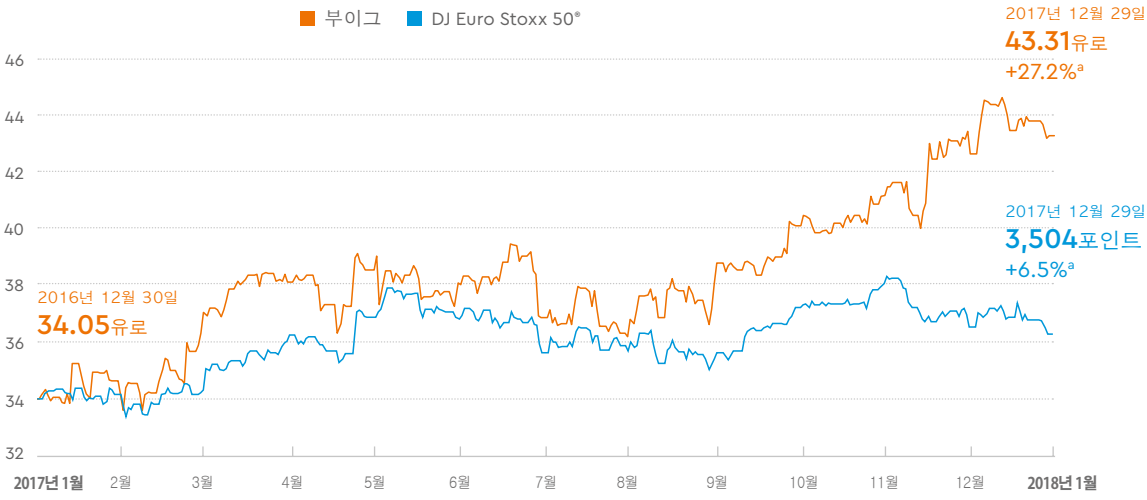
(c) 2018년 4월 26일 주주총회 상정 배당금. 2018년 5월 4일 배당금 지급.

새로이 조성된 클리시-바티뇰 지구의 마틴 루터 킹 공원에서 본 파리 법원 전경

부이그 주식

2016년 말 이후 주가 추이

장 마감 후 주가(단위: 유로)



(a) 2016년 12월 30일 대비

배당금 및 수익률 추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최종 장 마감 후 주가 (단위: 유로)	24.35	22.40	27.42	29.98	36.54	34.05	**43.31**
배당금 (단위: 유로, 주당)	1.6	1.6	1.6	1.6	1.6	1.6	**1.7[a]**
주당 수익률	**5.7%**	**7.7%**	**6.7%**	**5.2%**	**4.6%**	**5.2%**	**4.3%**

(a) 2018년 4월 26일 주주총회 상정 배당금. 2018년 5월 4일 배당금 지급.

2018년 주요 일정

4월 26일 목요일
부이그 주주총회

5월 17일 목요일
2018년 1분기
실적 발표

8월 30일 목요일
2018년 상반기
실적 발표

11월 15일 목요일
2018년 첫 9개월
실적 발표

상세 정보
당사의 재무실적에 관한 모든
유용한 정보

스마트폰으로 이 코드를 스캔하십시오(해당
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부이그 그룹의 간략 재무제표

단위: 백만 유로

연결 대차대조표

12월 31일 기준,

자산	2016	2017
유형 및 무형 고정자산	8,746	8,990
영업권[a]	5,367	5,385
고정 금융자산[b]	2,952	3,065
이연 법인세 자산	367	337
고정자산	**17,432**	**17,777**
유동자산	12,535	13,128
현금 및 현금 등가물	4,749	4,820
금융상품[c]	17	15
유동자산	**17,301**	**17,963**
매각 예정 자산 및 사업[d]	121	38
자산 총계	**34,854**	**35,778**

자기 자본 및 부채	2016	2017
자기 자본(그룹 지분)	8,140	8,851
지배권 무보유 지분	1,280	1,359
자기 자본	**9,420**	**10,210**
장기 부채	6,180	5,788
장기 미지급 비용	2,199	2,085
이연 법인세 부채	159	147
고정부채	**8,538**	**8,020**
유동 금융부채	265	736
유동부채	16,444	16,587
단기은행차입금 및 당좌잔고	168	209
금융상품[c]	19	16
유동부채	**16,896**	**17,548**
매각 예정 사업 관련 부채		
자기 자본 및 부채 총계	**34,854**	**35,778**
순금융부채 (-) / 순잉여현금 (+)	(1,866)	(1,914)

(a) 그룹 통합 기업의 영업권
(b) 지분법 평가 포함(귀속 영업권 포함)
(c) 금융부채의 정확한 가치 환산
(d) 2016년 및 2017년: 2017년 1월 발표했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은 통신 기지국 매각 관련
(e) 2016년 부이그 건설 및 콜라스의 A41 고속도로 양허사 지분 매각으로 인한 1억 2900만유로 포함.
(f) 2016년 비경상이익, 부이그 건설 및 콜라스의 A41 고속도로 양허사 지분 순양도차익, 콜라스의 A63 고속도로 양허사 지분 순양도차익 재처리. 2017년 비경상영업이익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3%의 배당금세 환불액 재처리.
(g) 2016년: 알스톰 주식공개매수 포함

연결 손익계산서

	2016	2017
매출액	**31,768**	**32,904**
경상영업이익	**1,121**	**1,420**
기타 영업이익 및 비용	(174)	113
영업이익	**947**	**1,533**
순금융비용	**(222)**	**(226)**
기타 금융이익 및 비용	41	38
법인세 비용	(249)	(303)
공동기업 및 합작기업 참여지분 손익배당[e]	267	163
사업 부문 순이익	**784**	**1,205**
지배권 무보유 지분 순이익	(52)	(120)
연결 순이익(그룹 지분)	**732**	**1,085**
예외적 요소를 제외한 그룹 지분 연결 순이익[f]	**632**	**936**

연결 현금흐름표

	2016	2017
영업활동 관련 순현금흐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504	2,884
단기 지급 세금	(280)	(325)
영업활동으로 인한 운전자금 소요 변동	194	(395)
A - 영업활동 관련 순현금흐름	**2,418**	**2,164**
투자활동 관련 순현금흐름		
순영업투자	(1,638)	(1,527)
기타 투자활동 관련 현금흐름[g]	933	(59)
B - 투자활동 관련 순현금흐름	**(705)**	**(1 586)**
재무활동 관련 순현금흐름		
연내 지불 배당금	(662)	(606)
기타 재무활동 관련 현금흐름	(31)	244
C - 재무활동 관련 순현금흐름	**(693)**	**(362)**
D - 환율 변동 영향	**(29)**	**(187)**
순 캐시 포지션의 변동 (A + B + C + D) + 비통화 현금흐름	**992**	**30**
기초의 순현금	**3,589**	**4,581**
기말의 순현금	**4,581**	**4,611**

건설부문

2

진보의 구현

부이그 건설
부이그 부동산
콜라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참석하에 2017년 9월 개통한 에든버러 (스코틀랜드)의 퀸스페리 크로싱으로 교통 체증 감소.

부이그의 건설부문은 인프라, 지속가능건물, 이동수단 면에서 날로 증가하는 소요에 부응하여 사업을 펼치고 있다. 건설부문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세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열정을 갖고 일하는 직원들의 창조력에 힘입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7년 주요 통합 지표

직원수	매출액	경상영업이익
104,500명	258억유로 (+3%)	9.48억유로 (+8%)

올레롱 섬의 교량 보수

프로필과 전략

환경적 도전과제와 도시화의 증가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복합적 건물과 인프라의 건설 및 리모델링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화로 인해 고객들의 사용 양상 및 기대가 변화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제공하는 이러한 환경에서 부이그 그룹의 건설부문은 **직원들의 노하우**에 힘입어 유리한 입지를 갖고 있다.

부이그 그룹은 **고부가가치 사업** 진행의 오랜 노하우 및 **지속가능건설** 부문의 전문성과 **뛰어난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건설토목, 부동산 개발,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진행한다.

부이그의 건설부문은 일상을 향상시키는 서비스를 끊임없이 추가 및 통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전문성은 특히 지구에서 커넥티트 시티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도시 정비 사업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이러한 혁신 솔루션은 천연자원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폭을 날로 늘려가야만 하는 도시들의 당면과제 해결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점

고객을 위해 열정과 탁월성을 발휘하는 공통의 기업문화

최종 사용자 중심의 종합적인 상품 및 서비스 라인업

- 적극적인 연구 혁신 정책
- 설계에서 사후관리 및 철거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상품과 서비스 라인업
- 다양한 규모와 분야의 파트너를 결집할 수 있는 역량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

- 1952년부터 축적된 복잡한 구조물 건설 경험
- 지속가능건설 부문의 주요 기업
- 대형 국제 프로젝트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팀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

전세계 5대륙에서 활발한 사업 수행

높은 현금보유고를 지닌, 견조한 재무구조

2017년 주요 사항

주요 계약 체결

- 부이그, <그랑 파리 광역시를 만듭시다>[a]라는 사업공모전에서 10개 현장 공사에 선정되다.
- 프랑스 최초의 스마트 시티 디종
- 싱가폴 부동산 복합단지
- 그랑 파리 지하철 15호선(2구간)
- 캘거리(캐나다) 남서 외곽순환도로 건설 및 사후관리(30년) 계약
- M30 및 M25(헝가리) 고속도로 3구간 건설
- 멜버른 지하철 건설 및 호주에 태양광 발전소 5개 건설

시공중인 사업

- 모나코간척 사업(앙스 뒤 포티에)
- 고가도로, 제방도로, 입체교차로 토목공사를 포함한 레유니옹의 새로운 해안도로
- 친환경지구: 취리히의 <그린시티>, 리용의 <유레카 콩플뤼앙스>, 마르세유의 <레파브리크>
- 홍콩의 터널(투엔문 – 첩락콕 링크 및 리엔탕); 홍콩-주하이-마카오 대교
- 노스코넥스 고속도로 연결 구간(호주).
- 안타나나리보 및 노지베 공항 건설 및 리모델링 (마다가스카르)

인도 완료 - 개관 완료 사업

- 일-드-프랑스 지방: 파리 법원, 크리용 호텔, 라 세느 뮤지컬, PSA 그룹 본사 신사옥
- 리용의 <폴르망 제를랑>(주택 650채), Green Office® <링크>
- 자그레브 공항(크로아티아) 및 이칼루이트 공항(캐나다)
- 마카오 시티 오브 드림스 부동산 복합단지 내의 모피어스 호텔
- 산티아고 데 칠레의 지하철 6호선

혁신

- 웹상의 주택 구조 설계 프로그램 전개(맞춤 설계 및 실시간 예산 산정)
- 도로용 동적 신호 솔루션인 콜라스의 플로웰 출시

전략적 발전

- 캐나다의 밀러 맥아스팔트(도로 공사 및 역청 유통) 인수 진행중
- 프랑스와 유럽에서 넥스트도어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아코르 호텔과 동일 지분을 보유한 공동 기업 창립

(a) 유럽 최대의 국제 도시조성 공모전

1 • 일본 최초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계약. 사진은 11월 턴키 계약으로 인도된 노헤지 발전소
2 • 안타나나리보 공항 건설 및 리모델링
3 • 이칼루이트(캐나다) 공항의 활주로에서

낭테르 퀘르 유니베르시테는 대도시 규모의 지속가능지구로서 2017년 2월 착공하였다.

2017년 집중 조명

부이그 그룹의 건설부문은 2017년 사업을 엄선하는 가운데에도 프랑스와 국제부문에서 뛰어난 영업실적을 보였다. 지속가능지구 및 스마트 시티 시장에서 주요 기업의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캐나다(콜라스의 밀러 맥아스팔트 인수 진행중)나 호주와 같이 안정적으로 진출한 국가에서 사세를 확장하는 전략을 계속 추진하였다. 경상영업이익과 수익성 역시 2017년 목표치에 부합하는 성장을 기록하였다.

"건설부분은 기록적인 수주잔액을 달성하였다."

건설부문은 2017년 말 전년 대비 6% 상승한 319억유로의 기록적인 수주잔액을 달성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2017년 말 부이그 건설과 콜라스의 수주잔액은 전년 대비 각각 8%와 9% 상승하여, 지난 3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부이그 건설은 그랑 파리 익스프레스 사업으로 십억 유로 이상을 수주하였으며, 콜라스는 도로 시장 경기 호조의 혜택을 입었다.

2017년 부이그 부동산은 피넬법, 무이자 대출 확장, 저금리에 힘입어 시장 평균을 상회하는 14%의 주택 예약매물 상승폭을 기록하며 프랑스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였다.

국제부문의 수주잔액 성장은 콜라스(캐나다 캘거리 남서 외곽 순환도로, 헝가리의 고속도로 계약, 영국의 철도 보수유지 7개년 계약)의 도로 및 철도 계약의 약진과, 부이그 건설의 호주 멜버른 지하철 건설 및 싱가폴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고층 빌딩 건설에 힘입은 바 크다.

기대에 부응하는 수익성 향상

2017년 건설부문의 매출액은 258억유로로, 전년 대비 3%, 동일 범위와 환율 적용시 4% 상승하였다.

경상영업이익은 9억 4800만유로로, 2016년 대비 6900만유로 성장하였다. 경상영업이익률은 0.2포인트 상승한 3.7%[a]를 기록하였다.

건설부문의 그룹지분 순이익은 7억 6200만유로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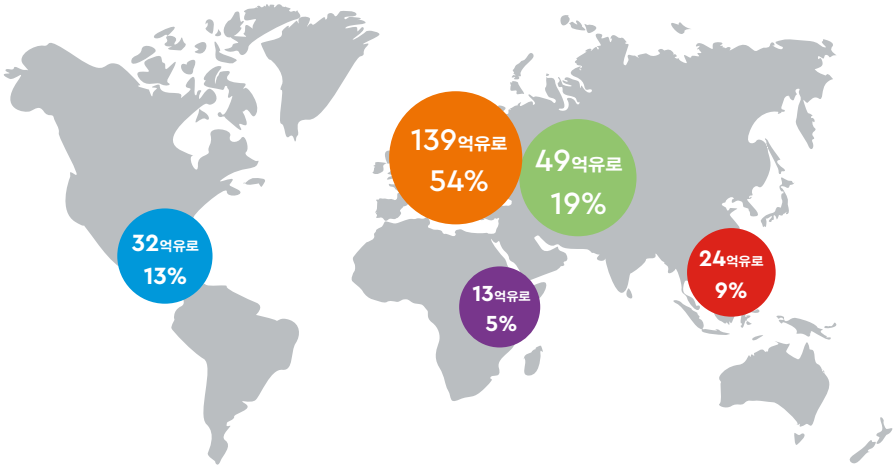
건설부문은 뛰어난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순현금보유고는 38억유로를 기록했다.

(a) 넥스트도어를 제외하면 3.6%

건설부문

지역별 매출액

258 억유로



- 프랑스
- 유럽(프랑스 제외)
- 아프리카 및 중동
- 아시아-오세아니아
- 미대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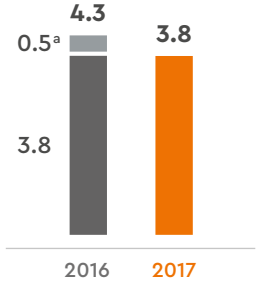
부이그 건설 및 콜라스의 수주잔액

12월 말 기준

■ 국제부문 ■ 프랑스 본토

건설부문의 현금 보유고

단위: 십억 유로, 12월 말 기준



(a) 2016년 배당금 선지급분(부이그 건설 2억 5000만유로, 콜라스 1억 7800만유로, 부이그 부동산 9000만유로) 포함

홍콩에서 완공될 해저 고속도로 터널 투엔문-첵랍콕 링크로 이동의 편의 제고

부이그 건설은 건물, 인프라, 산업 부문의 사업을 설계, 시공, 운영하고 있다. 부이그 건설은 글로벌 건설사로, 전세계 80개국 이상에 진출하여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건물

주택, 학교 및 대학, 병원, 호텔, 사무실 건물, 경기장, 공항 등.

인프라

교량 및 터널, 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 철도 및 항만 인프라, 트램웨이, 지하철 건설, 그리고 교통 인프라, 스포츠 및 오락 시설, 항만지역, 공공 조명 등의 관리 및 운용.

산업

디지털 및 에너지 네트워크 인프라, 재생 에너지 솔루션, 스마트 시티, 전기 엔지니어링, 냉난방 엔지니어링, 기계 엔지니어링, 산업설비의 사후관리 등

직원수
2017년 12월 3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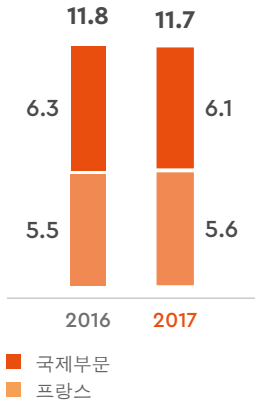
47,354명

상세 정보:
> www.bouygues-construction.com
> 트위터: @Bouygues_C

2017년 인도된 자그레브 공항으로 여행 편의 제고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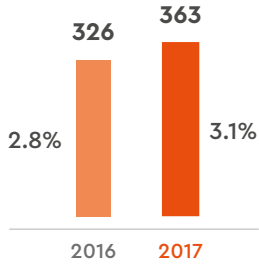
단위: 십억 유로



경상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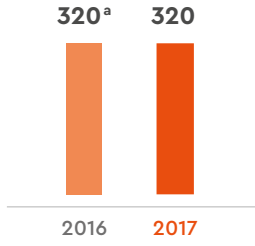
단위: 백만 유로

경상영업이익률(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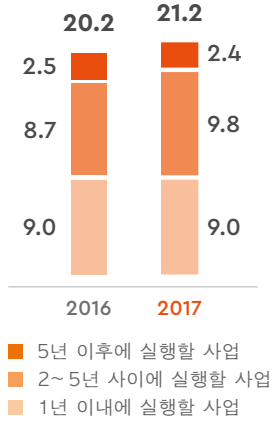
그룹 지분 순이익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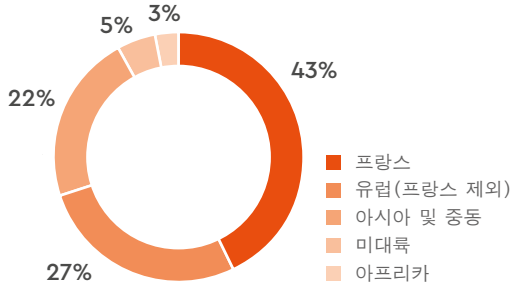
수주잔액[b]

단위: 십억 유로,
2017년 12월 말 기준



지역별 수주잔액

2017년 12월 말 기준



(a) 고속도로(A41) 양허사인 아들락의 지분 매각으로 인한 순양도차익 1억 1000만유로 포함
(b) 확정 수주(계약 체결 및 발효) 사업 중 앞으로 실행할 잔여 사업 분량을 나타냄

Bouygues Immobilier

도시 개발-운영 사업자 부이그 부동산은 모든 고객들이 도시에서 보다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 사무실 건물, 상가, 지속가능 지구를 개발, 조성한다.

주택

주거용 건물, 개인주택, 임대주택, 맞춤 및 진화형 커넥티드 스마트 주택(플렉솜)

기업 부동산

턴키 방식의 건물, 에너지 생산 건물 (GreenOffice®), 녹색 리모델링 (Rehagreen®), 혁신 및 협업 공간 (넥스트도어).

지구 조성

사회적 연계, 지역 생태계 통합 및 경제개발에 기여하는 근접 서비스 제공 주상복합 지속가능 지구 사업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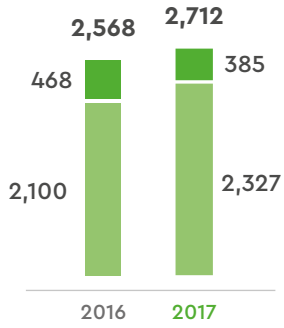
직원수
2017년 12월 31일 기준 **1,973명**

상세 정보:
> www.bouygues-immobilier.com
> 트위터: @Bouygues_Immo

도시의 삶의 질 제고: 로멩빌의 에바지옹 프로젝트는 기초 지자체 세느-생-드니 중심부에 위치한 취약지구 개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매출액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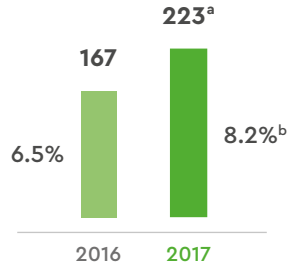


■ 기업 부동산 (사무실 및 상업용 부동산)
■ 주택

경상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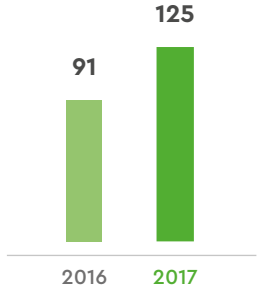
단위: 백만 유로

경상영업이익률(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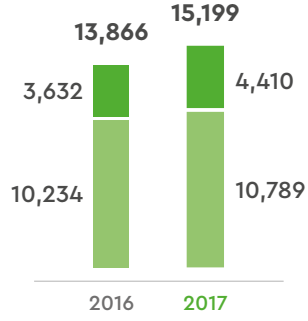
그룹 지분 순이익

단위: 백만 유로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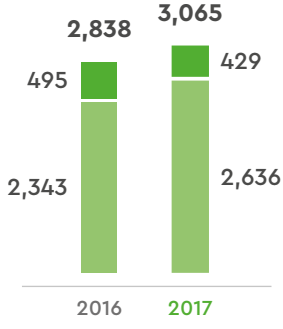
단위: 예약매물



■ 복수 예약
■ 개별 단위 예약

예약매물

단위: 백만 유로



■ 기업 부동산 (사무실 및 상업용 부동산)
■ 주택

(a) 넥스트도어 지분 50% 매각으로 인한 양도차익 2800만유로 및 보유 지분 재평가 포함
(b) 넥스트도어를 제외하면 7.2%

COLAS

콜라스는 교통 인프라 건설 및 사후관리 부문의 리더사로서, 책임있는 이동수단을 위한 인프라 솔루션을 추구한다.

전세계 5대륙 50개국 이상에 진출하여 사업을 펼치고 있는 콜라스는 매년 8만건의 공사를 시공한다. 또한 프랑스 국내외에 위치한 채석장, 유제 생산 공장, 코팅재 공장 및 레미콘 생산 공장 네트워크를 통해 대규모의 건설자재 생산 및 재활용 사업도 하고 있다.

도로

도로, 고속도로, 공항 활주로, 항만 및 물류 플랫폼 건설 및 관리, 도시계획 및 레저 설비 조성, 전용 노선 대중교통 (트램웨이, 버스); 건축자재(골재, 유제/접합제, 코팅재, 레미콘, 역청) 생산, 재활용 및 판매.

전문분야

철도(설계, 엔지니어링, 건설, 레일 갱환, 사후관리), 방수, 안전 - 도로 신호, 파이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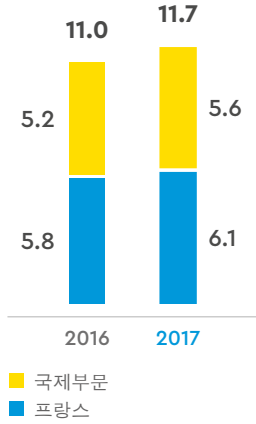
직원수
2017년 12월 31일 기준 **55,179명**

상세 정보:
> www.colas.com
> 트위터: @GroupeColas

모로코의 탕헤르와 케니트라를 단 47분에 연결하는 고속철 노선이 고속 여행의 편의를 제공한다.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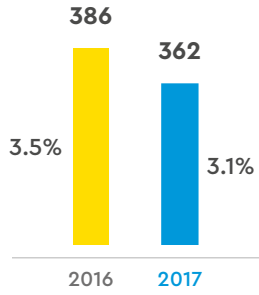
단위: 십억 유로



경상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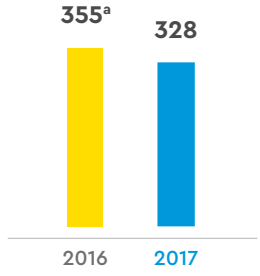
단위: 백만 유로

경상영업이익률(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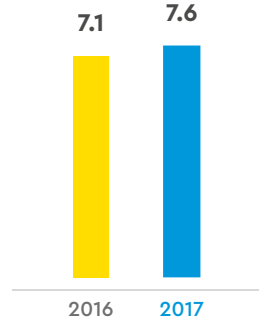
그룹 지분 순이익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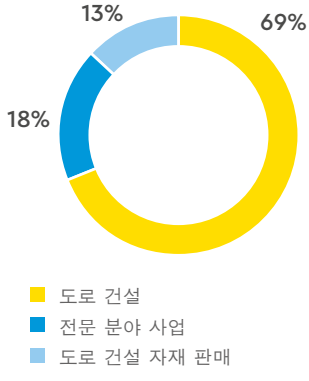


수주잔액[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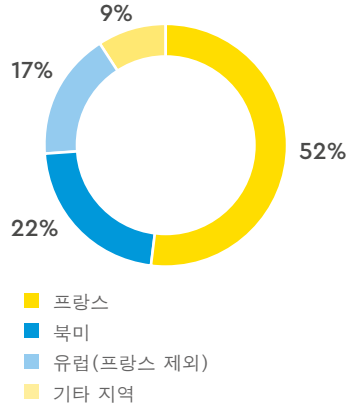
단위: 십억 유로, 12월 말 기준



사업부문별 매출액



지역별 매출액



(a) 고속도로 양허사인 아틀랑드(A63)과 아들락(A41)의 지분 매각으로 인한 순양도차익 7200만유로 포함
(b) 확정 수주(계약 체결 및 발효) 사업 중 앞으로 실행할 잔여 사업 분량을 나타냄

미디어

3

모든 시청자들을 위한 TV 및 디지털 컨텐츠 제공

TF1

얀 바르테스가 진행하는 정보와 오락을 제공 프로그램 <코티티엥>. 2016년 9월부터 TMC 에서 방송중.

TF1은 정보와 오락을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프랑스의 1위 미디어 그룹 TF1은 모든 연령대의 시청자들에 맞는 독보적인 TV 이벤트와 함께, 다양한 채널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7년 주요 사항

직원수	매출액	경상영업이익
3,057명	21.25억유로 (+3%)	1.85억유로 (+43%)

진행자 및 기자 니코스 알리아가스

프로필과 전략

프랑스 제일의 민영 텔레비전 그룹 TF1은 공중파 5개 채널[a] 및 그 외 네트워크의 4개 채널[b]을 통해 프로그램을 편성 및 방송하고 있다. 모든 스크린(텔레비전, 스마트폰 등)을 통해 컨텐츠를 제공하는 TF1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TF1은 프랑스와 유럽 시장을 위해 제작 및 디지털 사업을 개발한다. 또한 오락(홈쇼핑, 소셜 게임, 콘서트 및 공연 기획 등) 부문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TF1은 다음과 같은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다채널, 다매체, 다직군 전략 전개를 가속화하고 있다:

- 광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청률 선두를 달리는 대표적 프로그램들을 개발한다.**
- 무료 채널들의 정체성 및 타켓 시청자층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하고,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결합한 방송과 시너지 효과를 개발함으로써 **무료 채널 라인업을 최적화한다.**
- 특히 디지털 부문에서 **컨텐츠와 서비스의 현금화 및 유통을 증대시킨다.**

동시에 TF1은 조직 및 업무 방식의 단순화를 통해 민첩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a) TF1, TMC, NT1, HD1, LCI. HD1과 NT1은 2018년 1월부터 TF1 세리 필름 및 TFX로 개명되었다.

(b) TV Breizh, Ushuaïa TV, Histoire 및 Serieclub

강점

독보적인 포지셔닝

- 프랑스의 중심적인 채널인 TF1을 포함한 5개의 공중파 채널
- 다수의 시청자들을 아우르는 높은 시청률
- TV와 디지털을 결합한 여러 방식들을 통해 가시성이 증대되는 강력한 브랜드들
- 전플랫폼상에서 광고주들에게 독보적인 노출 기회 제공

시청각 컨텐츠 편성, 제작, 유통에 있어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노하우**

유망한 파트너십

- 유럽미디어동맹(European Media Alliance)[a] 회원사
- TF1의 자회사 뉴웬 스튜디오를 통한 유럽의 제작사 및 방송사들과의 파트너십

(a) ProSiebenSat.1의 주도로 결성된 유럽 선두 방송사들로 구성된 미디어 네트워크로, 지리적인 영역을 넓히고 디지털 부문의 투자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집중 조명

부동의 리더사

2017년 시청각 그룹 TF1의 시청률 점유율은 구매를 책임지는 50세 이하 여성 부문 32.3%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성장하였다. 4세 이상 개인 부문에서 TF1은 시청률 점유율 20%, 2017년 전부문 컨텐츠 통산 최대 시청률 20건 중 19건[a]으로 부동의 1위를 유지하였다. 지상파 디지털 방송 채널(TMC, TF1 세리 필름, TFX, LCI)의 시청률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는데, 구매를 책임지는 50세 이하 여성 부문 누적 시청률 10.2%(+0.5포인트)를 기록하였다.

한편 2017년 TF1의 디지털 플랫폼 MYTF1은 동영상 조회 13억건[b]을 기록하였다.

TF1의 자회사 뉴웬 스튜디오는 넷플릭스 및 TF1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프랑스의 고객 포트폴리오를 다각화 하였다. 그리고 유럽 전역에서 제작 활동을 펼치기 위해 네덜란드 최고의 독립 제작사 투발루를 인수하였다.

TF1은 2018년 1월 주로 패션, 미용, 요리 부문의 기사 및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업 오페미넹 인수 관련 협정[c]을 체결함으로써, 디지털 변화에 더 한층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적

2017년 TF1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3% 성장한 21억 2500만유로를 기록했다. 광고 매출도 2% 증가하여 15억 6200만유로에 달했다.

경상영업이익은 반복 절감액 2700만유로를 포함하여 5600만유로 증가한 1억 8500만유로였다. 2016년 실적은 유로 2016 축구선수권대회 방영에 따른 순비용 3700만유로의 영향이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TF1의 영업이익은 1억 6200만유로에 달했다. 이는 뉴웬 스튜디오 인수에 따라 재평가된 시청각 저작권의 감가상각분 2300만유로가 비경상비용으로 포함된 수치이다.

그룹 지분 순이익은 1억 3600만유로를 기록했으며, 2017년 말 기준 TF1의 순현금은 2억 5700만유로에 달했다. 2018년 오페미넹 인수가 완료되고 나면 TF1은 디지털과 컨텐츠 부분의 발전을 지속할 만한 여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a) 출처: 메디아메트리의 메디아맛 2017
(b) 뉴스 컨텐츠 제외, XTRA 컨텐츠 및 생방송 세션 제외
(c) 프랑스 및 오스트리아 규제당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

1 • 2017년 7월 TF1은 드라마 <내일은 우리의 것(Demain nous appartient)>을 이른 저녁 시간대에 방영하기 시작했다.
2 • 대선 예비선거를 위한 <대토론> 특별 방송
3 • 인터넷 플랫폼 스튜디오71은 웹 인플루언서들에게 국제적인 노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2017년 주요 사항

- **디지털:**
  - ProSiebenSat.1 및 메디아셋과 함께 세계 3 위 MCN[b]인 스튜디오71[a]의 지분 참여. 프랑스에서 사업 개시
  - 오페미넹 그룹 인수를 위해 12월에 공식적으로 조건 및 가격 제시[c]
- **시청률:**
  - TF1, 2017년 최고 텔레비전 시청률 20건 중 19건 기록[d]
  - MYTF1 동영상 조회수 13억건[e]
- **TV 제작:** 뉴웬, 네덜란드 최고의 독립 제작사 투발루의 과반수 지분 인수
- **광고:**
  - 벨기에에 TF1 광고 공간 판매협정
  - TF1, 메디아셋, ProSiebenSat.1 및 채널 4와 함께 범유럽 디지털 광고유통사 EBX[f] 설립
- **유통:** 알티스-SFR와 TF1 프리미엄 및 보완 서비스를 포함하는 혁신적 유통협정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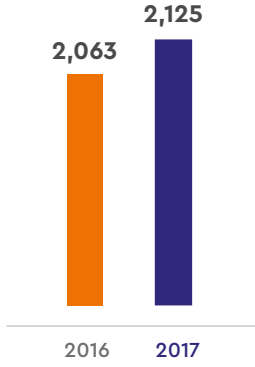
(a) 매달 동영상 조회수 60억건 이상, 1,100개 채널. (데이터: 2017년 1월 기준)
(b) 유튜브 등의 대형 플랫폼상에서 동영상 컨텐츠 및 디지털계 인재의 관리, 홍보 및 현금화에 특화된 컨텐츠 및 인플루언서 애그리게이터
(c) 2018년 1월 인수 협정 체결. 프랑스 및 오스트리아 규제당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
(d) 출처: 메디아메트리의 메디아맛 2017
(e) 뉴스 컨텐츠 제외, XTRA 컨텐츠 및 생방송 세션 제외
(f) European Broadcaster Exchange

상세 정보:
> www.groupe-tf1.fr
> 트위터: @GroupeTF1

이미 136개국에 판매된 뉴웬 제작 드라마 <베르사유>에서 영국 배우 조지 브래그덴이 연기한 루이 14세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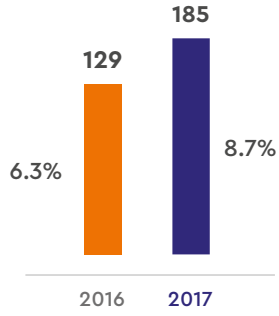
단위: 백만 유로



경상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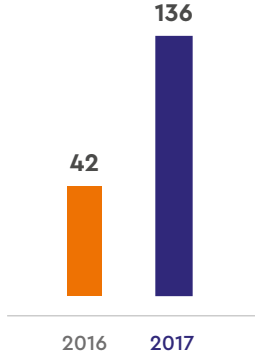
단위: 백만 유로

경상영업이익률(단위: %)



그룹 지분 순이익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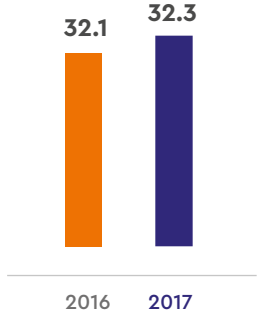
공중파 4개 채널[b]의 프로그램 편성 비용[a]

단위: 백만 유로

TF1 그룹의 시청률 점유율[c]

단위: %

구매를 책임지는 50세 이하의 여성



(a) 스포츠 경기 제외
(b) TF1, TMC, HD1, NT1, LCI(2016년 4월부터)
(c) 출처 : 메디아메트리 집계 연평균

HD1과 NT1은 2018년 1월부터 TF1 세리 필름 및 TFX로 개명되었다.

통신

4

고객의 디지털 라이프를 위하여

부이그 텔레콤

편리하고 유연한 고객 체험은 부이그 텔레콤이 창사시부터 지켜온 핵심적인 가치이다

프랑스 전자통신 시장의 주요 기업 부이그 텔레콤은 다양한 사용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디지털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자 한다.

2017년 주요 지표

직원수
7,398명

매출액
50.86억유로 (+7%)

EBITDA[a]
11.62억유로 (+27%)

고객수
1780만명

(a) 순무형자산상각배정액과 순준비금 및 감가상각배정액을 가산하고 미사용 준비금 및 감가상각금 재편입분을 감산한 경상영업이익

프로필과 전략

부이그 텔레콤은 고객들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통신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이그 텔레콤은 전국적으로 초고속(4G, 광케이블, 곧 5G 도입 예정) 디지털 기술을 전개하는 가운데, 다음 4개 축을 중심으로 전략을 펼치고 있다:

- **뛰어난 고객 체험:** 편리하고 유연한 고객 체험은 부이그 텔레콤의 중요 차별화 포인트로서,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고객 상담원들의 헌신적인 참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뛰어난 모바일 및 유선 네트워크 접근성:** 부이그 텔레콤은 모바일 인터넷 사용 증가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말까지 프랑스 인구의 99%에게 4G 커버리지를 제공할 것이다. 유선 통신 부분에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초고속 통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하에 광케이블 네트워크[a] 전개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2019년 말까지는 1200만 가구에게 광케이블 커버리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 **근거리 고객 서비스 강화:** 부이그 텔레콤은 특히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통신상품의 현지 판매를 발전시키고 있다.
- **기업 고객 부문 사업 및 사물 인터넷 사업 개발:**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시장에 있어서 부이그 텔레콤은 특히 자체 광케이블 네트워크[b] 전개에 힘입어 모바일 및 유선 통신 부문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한다. 한편 계열사 오브제니우스는 사물인터넷(IoT)의 발전에 발맞추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강점

고객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헌신적인 직원

- 95%의 직원들이 "회사를 취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2017년 사내 직원만족도 조사 결과)
- 고객 상담 및 판매 직원 3,500명이 제공하는 고객 서비스

경쟁력 있는 가격대의 유무선 통신 상품 라인업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의 급증을 지원하기 위한 뛰어난 4G 네트워크

- 2017년 말 기준 프랑스 인구 99%에게 2G 및 3G 모바일 통신 커버리지 제공, 95%에게 4G 모바일 커버리지 제공

(a) 집안까지 광케이블이(FTTH – Fibre To The Home)
(b) 사무실까지 광케이블이(FTTO – Fibre To The Office)
(c) Machine to Machine(사물지능통신)

2017년 집중 조명

2017년 부이그 텔레콤은 모바일 및 유선 부문 공세전략의 결실을 거두고, 3년 전 설정한 모든 목표를 달성하였다.

뛰어난 영업실적

부이그 텔레콤은 뛰어난 4G 네트워크와 고객의 사용양상에 적합한 상품 라인업에 힘입어, 모바일 부문에서 3년 내에 백만 고객을 추가 유치한다는 목표를 2016년에 계획보다 1년 앞서 달성할 수 있었다. 2017년 부이그 텔레콤의 고객은 140만명 증가하였고, 연말 기준 모바일 고객은 1440만명에 달했다. 2017년 말 정규 요금제 고객(MtoM[c] 제외) 수는 2016년 말 대비 500,000명 증가하여 1030만명을 상회했다. 4G 사용 고객[d]은 790만명으로, 모바일 고객의 77%에 달한다(MtoM 제외).

유선통신 부문에서 부이그 텔레콤은 사세 확장을 계속하여 가정 인터넷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였다. 부이그의 인터넷 상품은 ADSL과 FTTH[a] 모두 가장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한다. 2014년 말에서 2017년 말 사이에 고객 백만 명 증가 목표를 달성하였는데, 2017년에는 신규 고객 340,000명이 가입함에 따라 전체 고객 수는 340만명에 달한다. 이러한 성장세는 FTTH가 견인한 것으로, 1년 사이 고객이 144,000명 증가하였다. 2017년 말 부이그 텔레콤의 FTTH 고객 수는 265,000명을 상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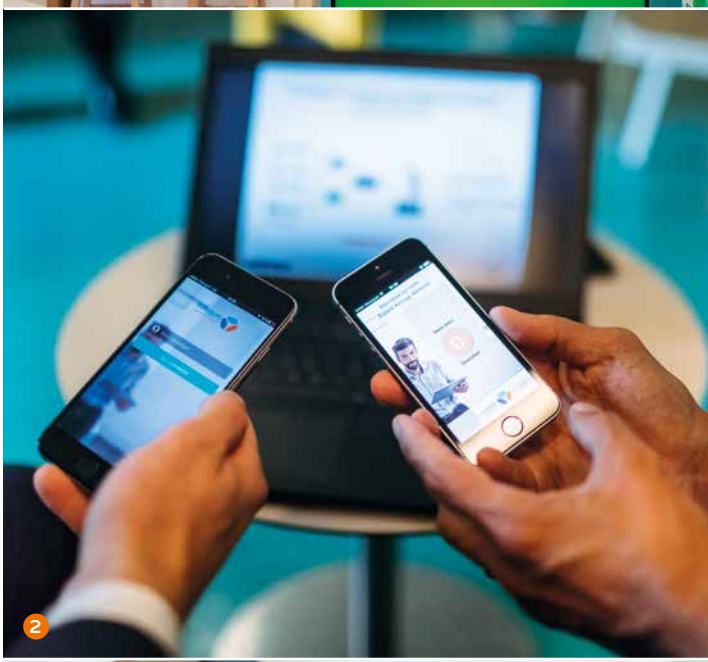
목표치를 뛰어넘어 크게 향상된 재무실적

2017년 부이그 텔레콤의 실적은 1년 사이 큰 성장세를 보였다. 매출액은 2016년 대비 7% 성장한 50억 8600만유로를 기록했다. 네트워크 매출액은 42억 7200만유로로 5%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EBITDA[e]는 27% 상승한 11억 6200만유로에 달했다. 네트워크 매출액의 EBITDA율은 27.2%로, 2015년 설정한 목표치인 25%를 초과달성하였다. 영업이익은 4억 7000만유로로, 기지국을 셀넥스에 매각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이그 텔레콤은 2017년 계획에 부합하는 12억유로의 총투자에 힘입어 모바일 및 유선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d) 지난 3개월 동안 4G를 사용한 고객(프랑스 통신우정규제청(ARCEP)의 정의)

(e) 순무형자산상각배정액과 순준비금 및 감가상각배정액을 가산하고 미사용 준비금 및 감가상각금 재편입분을 감산한 경상영업이익



1 • 벨리지 2 쇼핑센터 내의 부이그 텔레콤 매장
2 • 혁신적인 판매기법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으로 고객 서비스의 디지털화
3 • 2019년 말에는 1200만 가구가 광케이블 통신망에 연결될 것이다.

2017년 주요 사항

- **인사:** 부이그 텔레콤, 프랑스최고직장 2017 (Top Employers France 2017) 인증 획득
- **농촌 지역 커버리지 제공:**
  - 농촌 지역에 4G 셋톱박스 시판
  - 광케이블: 알티튜드가 판매하는 공공부문 이니셔티브 FTTH 네트워크(RIP)에 부이그 참여에 대한 협정. 유사한 협정을 악시온, 코바쥬 및 TDF와도 체결하였다.
- **기업:** 커넥티드 AS 개시
- **기술:** 에릭슨과 5G 시험, 25.2Gbps 다운로드 테스트 실시
- **환경:** WWF 프랑스와의 파트너십으로 전국적인 휴대폰 재활용 사업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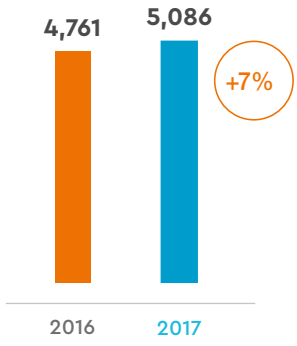
FTTH: Fibre To The Home, 집안까지 광케이블이

상세 정보:
> www.bouyguestelecom.fr
> 트위터: @Bouyguestelecom

2017년 1월부터 인구밀도가 낮은 프랑스 지방의 천만 가구를 대상으로 4G Box가 출시되었다.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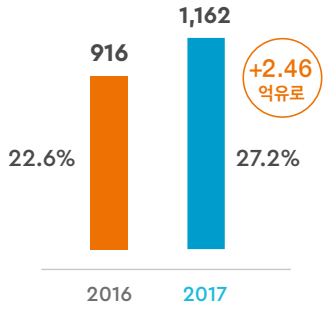
단위: 백만 유로



EBITDA[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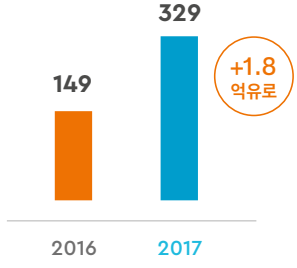
단위: 백만 유로

EBITDA율[b](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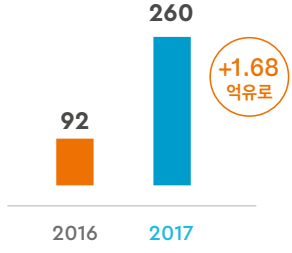
경상영업이익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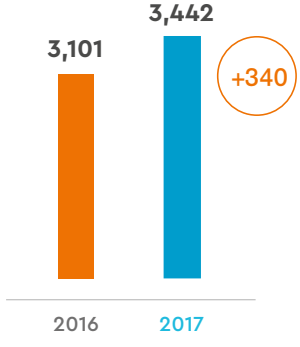
그룹 지분 순이익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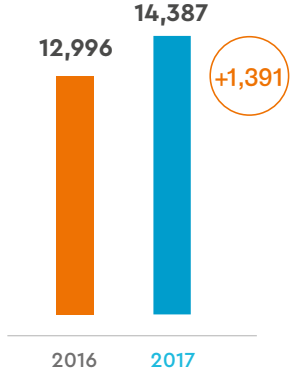
유선 고속인터넷 고객

단위: 천 명, 12월 말 기준



모바일 고객

단위: 천 명, 12월 말 기준



(a) 순무형자산상각배정액과 순준비금 및 감가상각배정액을 가산하고 미사용 준비금 및 감가상각금 재편입분을 감산한 경상영업이익
(b) 네트워크 매출액에 대한 EBITDA 비율

5

교통 솔루션 파트너

알스톰

시속 80 km로 첫 주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알스톰은 수소 기차 코라디아 이린트의 첫 계약을 성사시켰다.

ALSTOM
Designing fluidity*

지속가능 교통을 진흥하는 알스톰은 철도부문을 위한 시스템, 장비, 서비스를 개발 및 제안하고 시장에서 가장 광범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알스톰은 통합 철도 시스템 부문의 세계적 리더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유연성 설계

2016/17년 주요 지표

직원수
32,800명

매출액
73.06억유로
(동일 범위와 환율 적용시 +5%)

조정 영업이익률
5.8%

그룹 지분 순이익
2.89억유로

주요 사항

2017/18 회계연도 첫 9개월

- 남아공 프라사에서 첫 교외열차용 엑스트라폴리스 차량 인도
- 코치에서 메니드 인 인디아라는 이름의 첫 지하철 개통(인도)
- 시드니에서 첫 시타디스 X05 트램웨이 인도(호주)
- 에어버스와 사이버 보안에 관한 협력 협정 체결
- 수소 기차 코라디아 이린트 첫 계약
- 7년 연속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에 포함
-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을 위한 ISO 37001 인증
- 지멘스사의 이동수단 사업과 알스톰의 사업을 결합하기 위한 MOU 체결

프랑스에 본사를 둔 알스톰은 전세계 60개국 이상에 진출하여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직원수는 32,800명이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부이그의 알스톰 지분은 28%에 달한다. 프랑스 정부가 주식 매수 옵션을 행사하지 않음에 따라, 2017년 10월 17일 APE[a]는 부이그가 대주한 알스톰의 주식을 반환하였다.

도시화가 날로 진행됨에 따라 철도교통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6-2018년 기간 동안의 접근가능 전세계 연간 철도시장은 1100억유로로 추정되며, 앞으로도 연평균 3.2%[b]의 성장을 계속하여 2019-2021년 기간에는 연간 122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알스톰의 2020 전략이 첫 결실을 거두면서 그룹의 목표를 확정할 수 있게 되었다.

- **고객 지향적 기업 조직:** 전세계 교통 부문의 주요 기업 알스톰은 현지의 탄탄한 기반과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그리고 고객 지향적인 기업조직을 바탕으로 전세계 모든 대륙에서 1, 2위의 입지를 누리고 있다. 알스톰은 최근 카자흐스탄의 기관차 공동기업인 EKZ의 지분을 25% 증가시킨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종합적인 솔루션 라인업:** 하노이 지하철 3호선 시스템과 마닐라 LRT-1 라인에서 로스앤젤레스 P2000 경철도 차량에 이르기까지, 알스톰은 광범위한 노하우를 복합적으로 구사하며 철도교통 전분야(차량, 신호, 시스템, 서비스)에 걸친 전문성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알스톰은 미국의 아벨리아 리버티 고속철 납품 계약을 수주하고 지방 철도용 코라디아 이린트 수소 차량을 선보이는 등, 항상 보다 혁신적인 솔루션을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쟁력과 차별화를 담보하는 역량을 입증하였다.
- **탁월한 운영 및 환경 성과:** 알스톰은 운영 및 환경 성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일례로 2017년 10월 출시한 신세대 지방철도 코라디아 스트림은 최적화된 가격으로 향상된 모듈화 기능을 제공한다.
- **다양성과 기업가 정신에 기반한 기업문화:** 알스톰은 직원들 사이의 모든 형태의 다양성(양성 균형 배분, 다문화 등)을 장려하는 동시에, 직원들이 기업의 미래 구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한 기업가 정신에 입각한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다.

2017/18 회계연도 첫 9개월 실적

2017/18 회계연도 첫 9개월(2017년 4월 1일 ~ 12월 31일) 동안 알스톰의 49억유로의 수주액을 기록했다. 그룹의 매출액은 2016/17년 첫 9개월 대비 6%(동일 범위와 환율 적용시 6%) 성장한 55억유로에 달했다.

(a) 프랑스 국가투자청(Agence des participations de l'État)
(b) 출처: 유럽철도산업연맹(UNIFE) – 2016

GROUPE BOUYGUES
부이그 그룹
32 avenue Hoche
F-75378 Paris cedex 08
전화: +33 (0)1 44 20 10 00
bouygues.com
트위터: @GroupeBouygues

BOUYGUES CONSTRUCTION
부이그 건설
챌린저
1 avenue Eugène Freyssinet – Guyancourt
F-78065 Saint-Quentin-en-Yvelines cedex
전화: +33 (0)1 30 60 33 00
bouygues-construction.com
트위터: @Bouygues_C

BOUYGUES IMMOBILIER
부이그 부동산
3 boulevard Gallieni
F-92445 Issy-les-Moulineaux cedex
전화: +33 (0)1 55 38 25 25
bouygues-immobilier-corporate.com
트위터: @Bouygues_Immo

COLAS
콜라스
7 place René Clair
F-92653 Boulogne-Billancourt cedex
전화: +33 (0)1 47 61 75 00
colas.com
트위터: @GroupeColas

TF1
1 quai du Point du jour
F-92656 Boulogne-Billancourt cedex
전화: +33 (0)1 41 41 12 34
groupe-tf1.fr
트위터: @GroupeTF1

BOUYGUES TELECOM
부이그 텔레콤
37-39 rue Boissière
F-75116 Paris
전화: +33 (0)1 39 26 60 33
corporate.bouyguestelecom.fr
트위터: @bouyguestelecom

사진 출처: C. Abad (p. 34, 37), D. Andjus/GettyImages (p. 36), Anyaberkut/Istock (p. 23), S. Arbour/콜라스 (p. 9), L. Belando (p. 31), F. Berthet (p. 28), P. Bernik/Shutterstock (p. 29), 부이그 텔레콤 (p. 38), Y. Chanoit (표지 2면), C. Chevalin/TF1 (p. 6, 9, 31), C. Clanet (p. 21), 콜라스(p. 19), 콜라스/Sphère Communication (p. 6), R. Corlouër/TF1 (p. 30), S. Dee/GettyImages (p. 17), R. Drury/GettyImages (p. 35), T. Farroud (p. 8), A. Février (p. 2, 8), Funstock/Istock (p. 37), S. Grazia (p. 24), GaudiLab/Shutterstock (p. 27), P. Kurtz/알스톰 (p. 40), M. Lafontan (p. 37), F. Malot/Telsete/TF1 (p. 31), J.-C. Marmara (p. 1), D. Mc Allan (p. 9), L. Moghtader/Canal+ (p. 32), A. Montaufier (p. 18), T. Paviot (p. 25), Transport Scotland 의 무상 제공으로 복제 (p. 11, 16), J.-M. Ruiz/콜라스 (p. 26), L. Samain (p. 22), J. Souteyrat (p. 19), 디종 시청 (p. 5), Westend61/GettyImages/ (p. 40), L. Zylberman (p. 7, 11, 13). **건축사, 도시계획, 투시도 사무소:** ADDP Architects (p. 2), Antoine Delaire, DGM건축사무소 - 투시도: Golem, Anawa (p. 9), Brenac & Gonzalez et Associés (p. 24), François Leclercq – 투시도: Mekene (p. 20), Gigon/Guyer Architekten (표지 2면), RPBW (표지, p. 13), Studio KO (p. 8), Zaha Hadid (p. 9).